



있으며 그 實物도 적지 않게 現存하고 있는 바이다. 現在 此種 當代的 官印을 多數 收藏하고 있는 京都 藤井有隣館——이것은 원래 黃縣丁氏가 蒐集한 오늘에 있어서 印章의 가장 이름난 蒐儲——에 있다. 右의 晋代의 六例를 들어 比較하면 그 印面의 法量은 말할 것도 없고 鈕形도 同一한데 그 중의 하나인 「晉 裴善胡伯長」印 같은 것은 그 글자의 配置까지도 전혀 같은 사실을 認定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點에서 본다면 穢下의 一見 狍이라고 보기 쉬운 文字도 물론 伯으로서 此印이 穢伯長에게 주어진 사실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寫眞에서도 明白한 바와 같이 右의 印面은 現在 상당히 磨滅되고 또 緣部의 缺落이 눈에 띄이며 獸鈕도 또한 상당히 손자리가 있어서 鍔化된 銅色으로 推定케 함이 있다. 따라서 土中할 때까지는 使用되었던 사실을 그들로부터 推定케 할 수 있다. 이 銅印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中國에서 漢以來 四隣의 諸國의 長에게 준 所謂 官印의 晋代의 것으로서 이미 同様の 銅印이 數多한 中國의 古印譜에 著錄된

이 歷史的인 一事實을 內藏하는 銅印의 出土地에 대하여서는 當初 다만 慶北地區라고만 傳하였는데 爾後 三十年來 舊知인 金東鉉氏가 筆者 要請에 따라서 熱心히 探求를 계속한 結果 最近 그것이 慶北 迎日郡 新光面 馬助里임이 거의 確認되었으며 發見者는 同村의 權五述氏라는 所 報조차 없었다. 또 銅印과 더불어 空色の 硝子玉 十餘個가 같이 出土되었다는 知見까지 있어서 그로부터 出土遺跡이 古墓로 推定되기도 한다. 右의 出土地와 그 遺跡의 狀況이야말로 銅印이 보이는 바 그것이 紀元 三世紀의 後半부터 四世紀의 初頭에서 中國 晋으로부터 穢伯에게 주어진 重要한 事實에 대하여 意味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다시금 그 追求를 同學人士에게 期待하는 바이다.

河東 岳陽의 石造如來立像

朴 敬 源

昨年十一月末頃に 河東郡 岳陽面 亭西里 彌勒嶺에 있는 石佛을 調査하였으므로 이에 그 대강을 紹介한다.

一、位 置

岳陽面事務所가 있는 亭西里에서 西北으로 約 3km 가량 올라간 山中腹에 降仙庵이란 작은 庵子가 있는데 이 庵子는 四十餘年前에 本石佛을 奉安하기 위하여 創建한 것이고 石佛은 이 庵子 近處에서 옮겨 온 것이다.

石佛의 原位置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며 또 이 곳을 訪問한 날 庵子에는 사람이 없어서 原位置를 물어 보지도 못하였으나 現 庵子에서 數百m 程度의 가까운 距離에 있었다고 地方人士들이 말하고 있다.

이 곳에서 標高 八〇〇m의 재 하나 남은 곳에 高麗時代의 各種 遺物이 많이 出土된 元崗寺址(河東郡 花開面 富春里)가 있고 거기서 江을 따라



北行하면 雙溪寺가
約 6km의 가까운距
離에 있다.

二、佛 像

平面이 半圓形으
로 된 臺座上 臺石과
尖端이 둥근 舟形光
背와 佛像이 花崗岩
의 單一石으로 된 如

來形 立像으로 兩手が 折損 缺失된 것을 後補한 것 以外는 거의 完全하
고 表面에 아무런 粉粧도 하지 않아서 原形이 잘 保存되어 있는 편이다.

臺 座

下臺石은 一〇〇cm × 六三cm의 四角形으로 높이는 地中에 埋沒되어 알
수 없고 前面에는 單瓣 十一葉의 覆蓮과 兩쪽 귀에 四葉의 花形 하나씩
을 浮刻하였으나 手法이 아주 素朴하며 石質도 若干 差異가 있는 것 같
아서 上臺石 以上の 佛像全體의 분위기와 一致되지 않는 느낌이 있다.
上臺石은 直徑 八五cm의 半圓形의 前面에 複瓣 十一葉의 迎蓮이 새겨지
고 그 밑에 亦是 十一葉의 華盤(?) 같은 것이 仰蓮을 받치고 있다. 仰
蓮部의 高 一五cm 받침部 九cm 上臺의 全高는 二四cm인데 이 받침 밑에
中臺가 缺失된 것으로 생각된다.

像 容

頭部는 素髮에 肉髻가 比較的 크고 兩耳는 길게 垂下하였으며 半開한
兩眼은 眼尾가 若干 올라 갔고 口唇은 작은 편이나 턱과 목의 三道가
豐滿하여 그 慈悲스러운 모습이 한층 強調되고 있다.

通肩衣의 옷자락은 左右 對稱이 嚴格히 지켜졌으나 그 衣褶은 纖弱한
線으로만 表現되어서 辟 形式化되고 말았다.

手印은 寫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목부터가 後補한 것이지만 그 形
態로 봐서 與願 施無畏의 通印形을 推測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左手는
藥壺를 든 手印의 可能性도 없지 않을 듯하다.

光背는 前述한 바와 같이 끝이 둥근 舟形에 頭光과 身光을 單線으로
浮刻 表現한 單純한 形態로 되어 있으나 그 側面에는 上半部(佛像의 胸
部以上)에 直徑 一cm 가량의 圓孔이 不同한 間隔으로 頂部에 까지 配置
되어 있다.

이 光背의 表面에 火焰 등 아무런 裝飾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러한 壯嚴을 하기 위한 구멍이 아닌가 싶어서 興味를 느꼈다.

佛像高 一九一cm 佛像幅(肩) 六一cm 光背高 二二〇cm
光背幅(肩部) 八五cm 總高 二五五cm

이 佛像은 衣褶이나 臺座 光背 등의 彫刻이 形式化하여 纖弱한 感이
없지 않으나 全體의 均衡이나 立體感이 比較的 잘 잡혔고 또 面相의 圓
滿한 表現 등이 高麗期의 作品中에서는 좋은 편에 들 것이다. 특히 半圓
形의 臺座와 上臺 以上の 佛像 光背가 單一石으로 된 것, 光背의 周緣에
壯嚴을 施設한 흔적 같은 것은 재미 있는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東萊 新岩里 打製石器 一括

任 孝 宰

I

지난 一九六六年十一月二十九일부터 十二月 七日까지 서울大學校 考
古人類學科 二學年生 李白圭와 함께 慶南 東萊郡 西生面 新岩里와 西生
洞을 連結하는 約 一〇km에 達하는 海岸一帶의 先史時代 遺蹟을 調査하
였다. 그 結果 新岩에서 內陸으로 約 二km 떨어진 龍洞에서 三〇餘基의
支石墓群을 發見하였고 新岩里 西生中學校 實習地에서 多數의 魚骨文土
器(新岩 A 遺蹟) (齊藤 忠·考古學 雜誌 二五卷 六號) 以外에 隆起文土
器(新岩 B 遺蹟) 發見하였다. 특히 新岩 B 遺蹟의 경우 典型的인 魚骨文
地點에서 隆起文系土器 및 斑岩製 打製石器를 出土하는 새로운 遺蹟을
(新岩 B 遺蹟) 發見하였다. 특히 新岩 B 遺蹟의 경우 典型的인 魚骨文